

#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5%

### 기존 2.8%에서 0.3%p 낮춰... 이주열 총재 "대내외 여건 변화, 민간소비 위축에 초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0.3%p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하게 됐다. 한은은 지난해 1월에는 3.2%의 전망치를 내렸지만 이후 4월 3.0%, 7월 2.9%, 10월 2.8%로 계속 낮췄다.

미국 대선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이후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 경제 역시 정치불안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전망시점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미 대선 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의 기대변화 등 대외여건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상황도 경제 외적인 변화가 많아 그에 따른 심리위축을 반영해서 하향조정했다"며 "민간소비가 생각했



남자들을 사로잡는 멋진 오토바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남성소비문화 전시회 '맨즈쇼 2017'에서 멋진 오토바이들이 전시되고 있다.

던 것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전망치는 여전히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나이스신용평가는 2.4%, 현대경제연구원 2.3%, LG경제

연구원 2.2%, 한국경제연구원 2.1%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를 넘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지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연중 평균으로 1.8%가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물론 하반기로 가면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수요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 '고속 콤팩트 핸디형 스캐너' 출시

### 한국엡손, 1kg 내외 초경량 초소형 사이즈

한국엡손이 일상 속 휴대가 간편한 초경량·초소형의 '고속 콤팩트 핸디형 스캐너' 2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고속 콤팩트 핸디형 스캐너는 'DS-310', 'DS-360W' 제품으로 가방 안에도 손쉽게 휴대 가능한 약 1kg 내외의 초경량에 초소형 사이즈(28.8x8.85cm)다.

USB와 AC 어댑터 등 다양한 전원 공급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간편해 사무공간이 좁은 일반 사무실은 물론 외근이 잦고 문서의 전자화 수요가 많은 보험

및 영업 관련 직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DS-360W'는 와이파이(Wi-Fi) 지원 및 내장형 배터리 탑재로 완벽한 무선 스캔을 지원한다. 무선 공유기(AP) 없이도 스캐너에서 직접 스마트기로 스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와이파이 다 이렉트(Wi-Fi Direct) 기능을 지원해 카페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한 스캔이 가능하다.

엡손은 고속 콤팩트 핸디형 스캐너 출시 기념으로 온라인 쇼핑물 구매고객 대상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뉴시스

## 신한은행, 베스트딜 부문 한국 최우수 자본증권상 수상

신한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디 애셋(The Asset)'이 주관하는 '디 애셋 트리플 에이 어워드 2016'에서 국가별 베스트딜 부문 '대한민국 최우수 자본증권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디 애셋 트리플 에이 어워드는 매년 아시아 금융섹터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 및 딜을 선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5억 달러 규모의 바젤3 적적 외화 후 순위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도이치은행 위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미국 트럼프 당선 등 글로벌 금융환경이 유난히 불안했음에도 국내 시중은행 중 유일한 투자자격 등급 자본증권으로 세계 각지의 우량 투자 자로부터 주목을 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배터리전기차, 글로벌 자동차 핵심 트렌드

### "강력한 환경 규제 영향" ... '연결성·디지털화' 2위, '수소연료 전기차' 3위

2025년까지 '배터리전기차'(BEV)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삼정KPMG에 따르면 KPMG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42개국 1000여명의 자동차산업 경영진들과 2400여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7 글로벌 자동차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동차산업에 이룰 핵심 트렌드로 배터리전기차가 선정됐다.

지난해 핵심 트렌드로 꼽혔던 '연결성·디지털화'가 2위로 떨어지고, '수소연료 전기차'가 3위에 올랐다.

디터 베커 KPMG 글로벌자동차산업 부문 리더는 "전기차(e-Mobility)가 올해 주요 트렌드가 된 배경은 현재 자

동차산업 내 강력한 환경 규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젤차'의 전망은 어두웠다. 자동차산업 경영진의 절반 이상은 '디젤'이 완성차업체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전통적 구동 기술이 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은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총비용(TCO) 차원에서 높았지만 자동차산업 경영진들은 향후 5년 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53%)와 내연기관 및 풀 하이브리드(52%)에 높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임원들은 디지털 생태계도 주목했다. 응답자의 85%는 자동차 디지털 생태계로 인한 수익이 자동차 자체에서 나온 수익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

대했고, 71%는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산정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베커는 "자율 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자동차가 어떠한 동력원으로 구동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자율 주행으로 확보되는 소비자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위승훈 삼성KPMG 자동차산업본부 부대표는 "전기차 등과 함께 주목할 부분은 2030년에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40%가 중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경제가 성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미국·유럽·일본 등을 넘어서는 자동차 소비·제조국 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금감원, 5명에게 1억2075만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제보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4410만원), 부정거래 6건(9325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뉴시스

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 3억2525만원이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4410만원), 부정거래 6건(9325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뉴시스

##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미뤄졌다.

지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열린 계획이던 금호타이어 채권단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 서류 검토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외국어 서류를 받다보니 좀 더 정확한 해석

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호타이어 인수전에는 중국계 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소개서는 물론 직원들의 고용 승계, 앞으로의 회사 경영 계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중문(中文)으로 제출했다.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와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